

내년 서울정원박람회, 역대 최대규모로 연다

서울시, 내년 ‘천만의 정원’ 확대 개최
180일간 서울숲·매한시민의숲 일대

지난 5월부터 165일간 열린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1044만1497명이 다녀간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행사를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과 매한 시민의숲 일대에서 역대 최장 180일간 확대 개최한다.

서울시는 내년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 일대에서 메인 행사를 열고, 가을 단풍 명소인 매한시민의숲에서는 10월 한 달간 ‘가을 특별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올해보다 개최 기간과 공간을 모두 확대한 ‘역대급 정원축제’로, 서울의 자연·문화·도심 공간을 아우르는 ‘도심형 정원페스티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사 규모는 서울숲(약 48만㎡)과 매한시민의숲(약 18만㎡) 등 총 20만 평에 달하며, 성수동 골목길과 한강·중랑천·양재천 등 수변공간까지 연결해 사계절 정원 경관을 선보인다.

서울숲은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페스타가든 ▲패밀리가든 ▲에코가든 ▲감성가든 ▲리버뷰가든 ▲트렌드가든 등 6개 테마존으로 구성된다. 각 공간은 생태·가족·문화·휴식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 정원문화를 시민 생활 속으



지난 5월부터 165일간 열린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모습. /서울시

로 확산시킨다.

서울시는 특히 내년 박람회를 ‘탄소 중립형 생태정원’과 ‘K-컬처 예술정원’으로 이중 구성한다. 폐목재 등 순환 자원을 활용해 생태적 조화를 살리고,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세계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정원축제로 키운다는 목표다.

매한시민의숲에서는 내년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가을 특별축제’가 열린다. 1986년 개원해 내년 40주년을 맞는 매한 시민의숲은 서초문화예술공원, 양재천, 여의천 등으로 정원 네트워크를 확장해 서초·강남권 정원벨트를 구축한다.

오세훈서울시장은 “내년 정원박람회를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정원도시 서울’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키링 버튼 한번으로 긴급신고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확대

서울시, ‘안심헬프미’ 10만개 지원
위급시 3초간 누르면 관제센터 연결
사회안전약자 신청자에 무료 지원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 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 전송과 긴급신고 기능을 강화한 생활안전망을 확대 구축한다는 취지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안심헬프미 지원 물량을 지난해(5만명) 대비 올해 2배로 늘려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주 또는 서울이 생활권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 중 신청자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그 외 희망자의 경우 자부담금(7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와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을 지원하고 있다. 안심헬프미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

영돼 기능과 디자인도 대대적으로 개선됐다. 보다 신속하게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핸드폰에서 ‘서울 안심이’ 앱을 켜지 않고도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다만, 안심헬프미와 서울 안심이 앱 간 최초 1회 연동은 필수다.

그 밖에도 신형모델은 배터리 지속 기간이 완충시 약 1년으로 늘어났고, 기기 자체에서 무음신고 기능(긴급신고 버튼 빠르게 3회 누르기)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키링 디자인도 기존 3종에서, ‘해치와 소울프렌즈’의 모든 캐릭터를 활용한 총 5종으로 확대해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스트랩 탈착이 가능해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트랩 외에 내가 원하는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민생쿠폰’ 2차 지급률 97.3% 기록

이달 30일까지 사용 당부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10월 31일 기준 97.3% 지급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 1213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1181만 2000여 명이 1조 1812억 원을 수령했다.

시군별로는 의왕시가 98.2%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각각 98.1%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소비쿠폰 지급 초기인 7~8

월 경기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용액은 1조 10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313억 원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소비쿠폰 사용액 4097억 원을 포함해, 실제 사용 증가분 6765억 원은 소비쿠폰이 지역소비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도민들은 기한 내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작은 말이 큰 힘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

서울교육청, 생명존중 응원문구 전시
학생들이 쓴 문구로 정서적 공감 쌓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생명존중 응원 문구 전시회 ‘작은 말이 큰 힘이 되는 순간: 나를 응원하는 한마디’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지역사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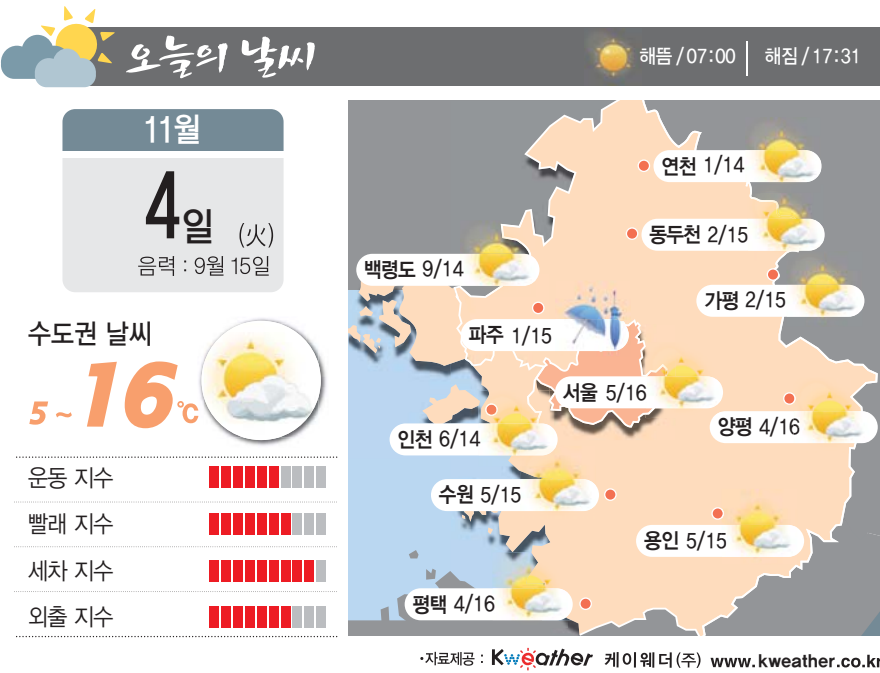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지난 9월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에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생명존중·자기존중 문구가 소개된다. 참여 학생은 약 900명이며, 이 가운데 창의성과 진정성이 돋보인 50개 문구가 최종 선정돼 전시된다.

행사 기간 중 방문객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며, 종로·중구·용산구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협찬한 리플렛도 함께 배부된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가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과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도규 교육장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문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전시가 학생들의 정서적 공감과 긍정적 자아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학교 상담(교)사 배치 ▲모든 학년 사회정서교육 운영 ▲서울학생 통합콜센터·응급지원단 운영 ▲심리치유센터 ‘마음치유학교’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 37.4% 줄어

교육부, 학생맞춤지원법 시행 앞뒤
“기초조사는 출발점, 국회 증액 노력”

교육부가 학생 개인의 학습·복지·건강·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밝힌 가운데, 정작 제도의 기초가 되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이 37.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9억3000만원에서 내년 5억8200만원으로 감액됐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으로, 학생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다.

감액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5년(2024회계연도) 평가에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으면서 자동 감액 기준이 적용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는 제도의 출발점인 만큼 국회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中 제압보다 협력이 낫다…첨단 AI칩은 안 줘”
▲中전문가들, 韓中정상회담 긍정 평가…“양국 관계 정식 재개” /사진 뉴시스

▲독일 망명 신청자 절반으로 급감…“이민 통제 효과”
▲나토 군사위원장 “나토는 핵 동맹…러 발트3국 공격시 美와 함께 대응”

▲“日다카이치, 北에 김정은과 회담 의사 이미 전달”
▲아프간 북부서 규모 6.3 강진…최소 10명 사망·260여명 부상